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속도 낸다

기업·연구기관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법적 근거 마련 시 “창원·고흥 등 국가계획 연계...지·산·학·연 협업할 것”

순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순천시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음을 뜻한다.

순천시는 올해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단(段) 조립장을 유치하고, 6월에는 순천대학교 글로벌 대학 30 예비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에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교류, 전시회·박람회,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사업추진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이 조례가 이달 말 공포·시행되면 순천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주산업 연구·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민간 재사용 발사체와 우주 비행선 추력기(추진력 제공 장치), 큐브위성(부피 1L 무게 1.33kg 미만 초소형 위성)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기관·단체를 유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초소형·저가화 되는 인공위성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메탄 등 신연료 기술로 무장한 창업기업 등이 순천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탁월한 정주 여건과 편리한 도로·공항·항구 등 교통망, 기업 하기 좋은 산업 여건 등 강점을 심본 활용할 것”이라며 “창원·진주·사천·고흥으로 형성된 국가 계획과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지·산·학·연 협업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협약식은 오는 12월 예정됐다. 한화는 올해 순천시와의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부지계약·설계를 거쳐 2025년 초 단 조립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한화는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구 선도(앵커)기업 건의, 우주산업 상호협력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공동노력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망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이후 11월에는 순천대 글로벌 대학 30지정을 달성하면 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교육·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구상의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6월 노관규(왼쪽) 순천시장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만나 우주발사체 사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양 와우공원 ‘장애물 없는 환경 예비 인증’

노인·임산부 등 접근 쉽고 불편 없게...내년말 완공 후 본 인증

내년 12월 완공되는 광양 와우공원이 전남에서 처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무장애 도시숲’을 내걸고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인 광양 와우공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받았다. 와우공원 구상도.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마동 와우공원이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BF(베리어 프리)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 없이 있도록 계획·설계·시공한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광양시는 예비 인증을 기반으로 내년 말까지 공원을 완공한 뒤 본 인증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광양 와우공원은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무장애 도시숲’을 내걸고 조성되고 있다.

총사업비 15억원(기금 3억3000만원·시비 12억1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1만6789㎡ 면적의 와우공원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실시설계 용역,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와우공원에는 무장애 놀이시설과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요 지점마다 음성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장실과 휴식시설 등 모든 공원시설에는 사회적 약자 이용 편의시설을 갖춘다. 이로써 와우공원 전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심청어린이대축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곡성군이 ‘23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한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지난 19일 열었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 요원 배치, 사고 때 대응조치계획, 응급차량 이동로, 주차·교통대책,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했다.

23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가을에 열리는 전국 유일 어린이 축제라서,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위는 행사장의 모든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종합 상황실과 비상 대응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곡성군 안전관리위는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교육지원청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맡는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많은 가족 관광객들이 찾게 될 이번 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때 연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

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at@kwangju.co.kr

보성장학재단, 하반기 장학생 210명 모집

10월 4일까지 성적 우수·보급자리 등 5개 분야

(재)보성군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2023 하반기 장학생을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

선발 요강에 근거 해당 학교 및 읍·면사무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재단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과 부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이다.

장학금은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및 보성군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선발 분야와 인원은 성적 우수 80명·보급자리 60명·한울타리 55명·아름드리 6명·푸름꿈 9명 등 5개 분야 총 210명이다.

보성군장학재단은 장학사업 이외에도 장학금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리고 장학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3회 수기 공모전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해당 학교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서 한방체험 ‘힐링 웰니스 문화제’

30일 사상체질검사·인삼 모종 심기·공연·강좌 등 다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 한방체험센터에서 오는 30일 ‘힐링 웰니스 문화제’가 열린다.

한편 웰니스 체험을 할 수 있다.

웰니스 문화제는 올해 7번째 열린다. 행사 주제는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한 힐링 마당’이다.

행사장에서는 사상체질검사, 내 몸 사랑 한약방, 인삼 모종 심기, 약용식물 사진 전시, OX 한방 문제 풀이, 예쁜 글씨 무료 나눔 행사 등이 펼쳐진다. 가야금병창, 대금·해금 아쟁 연주, 한국무용 등 다양한 전통 문화공연도 곁들여진다.

‘웰빙’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웰니스는 치유와 건강 체험을 함께 제공한다.

올해 정원박람회를 맞아 새롭게 마련한 ‘어싱(Earthing)길’과 연계한 강좌도 진행한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30일 웰니스 문화제를 열어 관람객들이 휴식을 즐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민국 맨발협회 소속 김은정 박사가 ‘어싱의 원리와 효능·체험’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방문객들은 정원과 전통문화, 한방 요법 등을 결합

한편 웰니스 체험을 할 수 있다.

한편 웰니스 체험을 할 수 있다. 웰니스 문화제 참여는 오는 25일까지 조직위 정원운영부 웰니스체험팀(061-749-2880·sopi98@korea.kr) 또는 한방체험센터(061-749-2885)로 하면 된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 한방체험센터는 약초 등 한방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관, 전시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한방 족욕, 향낭 만들기, 사상체질검사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굴렁쇠 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여수시가 지역의 100년 미래를 이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선포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뒷줄 가운데)가 지난 19일 여수 문화홀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지난 19일 여수 문화홀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이상식이 열렸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발판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며, 아동의 꿈이 현실이 되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수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인 만큼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6개 분야, 4개 전략 목표로 구성된 ‘2022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을 세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수시와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금영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홍범 여수경찰서장,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며 “여수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인 만큼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참석자들은 아동관리현장을 읽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축하하는 시·아동의 응원 영상을 함께 봤다.

이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선포하고 현판을 달았다. 이날 아동 정책제안과 사생대회 입상자에 대한

GS칼텍스-여수시, 19년째 한가위 온정 나누기 ‘훈훈’

2005년부터 16억 후원

GS칼텍스 여수공장이 한가위를 맞아 19년째 ‘사랑의 온정 나누기’를 이어오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여수시와 GS칼텍스가 사랑의 온정나누기를 위해 식료품을 포장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지난 19일 세계박람회장에서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와 한가위를 맞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펼쳐 훈훈함을 전했다.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장,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 정철섭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공동위원장, 이두희 GS칼텍스 생산본부장,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GS칼텍스의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를 통해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된 후원품은 총 16억원에 달한다.

후원 물품은 20kg 쌀 1264포와 부침가루, 당면, 간장, 양념장 등 명절 음식 준비에 쓰일 식료품 선물 세트 600개로 131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구 460가구, 북한 이탈주민 140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GS칼텍스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GS칼텍스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지역 내 귀감이 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행사장에서는 정 시장을 비롯해 전달식에 참여한 이두희 GS칼텍스 생산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온정을 담아 600개의 식료품 선물 세트를 직접 포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두희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더 많은 분이 지역의 파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나눔활동에 더욱